

# 중산계급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

홍 해 명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계급협조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착취계급과 그 앞잡이들은 <계급협조론>을 들고나와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피착취근로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 71페이지)

《계급협조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대립과 투쟁을 부정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타협과 협조,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는 부르쥬아반동리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협조론》을 류포시키는 대표적조류의 하나는 중산계급론이다.

중산계급론은 현대독점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계급적대립과 빈부의 차이가 해소되고 《무계급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계급관계를 외국하는 현대부르쥬아사상조류이다.

중산계급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발생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히 류포되였다.

20세기 후반기 중산계급론이 조작류포된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이 더욱 첨예화된것과 관련된다. 부르쥬아사상가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파잉생산공황의 끊임없는 반복과 대중적실업의 증대,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이에 따르는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의 격화로 하여 더욱 첨예화되는 적대적모순을 가리워보려는 데로부터 중산계급론을 조작하였다.

이시기 중산계급론이 조작류포된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것과도 관련된다.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추진됨

에 따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 그들이 수적으로 근로자대렬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부르쥬아사상가들은 이것을 외국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마치도 계급적대관계가 완화되고있는듯이 설교하는 중산계급론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중산계급론의 대표자는 피터 드락커 (미, 1909~ )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원에서 출생하였으며 원대학을 졸업하였다. 주요저서는 《후기자본주의사회》(1992)이다.

중산계급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증가되는 현상을 외국하여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이 저절로 해소되고있는듯이 주장한다는데 있다.

중산계급론자들은 중산계급이 끊임없이 확대되기때문에 로동계급은 수적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용해된다고 하면서 마치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대적인 계급관계가 저절로 완화되고있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중산계급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중산계급을 구중산계급과 신중산계급으로 구분하고있다.

구중산계급이란 소규모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사회이전부터 존재해온 중농, 소상점주, 소공장주 등이 속한다. 자본주의발전과 함께 쇠퇴, 불안정화되는 층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구중산계급이라고 한다. 신중산계급이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직접 생산에도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관리자, 기술자, 국가공무원, 교원, 봉사자, 고급기능공, 지식

로동자 등이 속한다. 자본주의발전의 산물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가는 층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신중산계급이라고 한다.

중산계급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따라 로동계급은 중산계급에 융해된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로자간의 대립의 해소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결코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없어질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총체적으로 임금로동자의 수는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발전과정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가 자본주의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자본주의의 발생초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가계급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함께 농업의 자본주의화와 농민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적기업이 수십명규모의 기업으로부터 수백~수천명규모의 대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로동자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농업과 림업, 운수 및 소매업, 봉사업등 분야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소생산자들이 급격히 파산몰락되어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전락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산업부문, 상업 및 봉사부문, 사회부문, 농업부문에서 고용로동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본가에게 고용된 총체적인 근로자들의 수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임금로동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의 수는 이미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를 압도적으로 룡가하였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산업 시대에는 로동계급의 생활적기초가 달라지고 로동이 더욱더 기술화, 지능화되고있으며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한마디로 시대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다.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기술문화수준, 로동조건, 생활수준 등에서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역시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니며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도 여전히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받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종래 의미에서의 로동자대중과 새로 늘어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합하면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차지한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도 계급적모순이 해소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첨예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산계급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외곡하여 계급투쟁이 더는 벌어지지 않게 되는듯이 주장한다는데 있다.

중산계급론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계급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사회주의도 지향하지 않게 된다고 떠벌이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지난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그들의 계

급의식이 없어진다는것은 허황한 꾀변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가 더욱 범람하게 되며 이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의식화를 억제하는 강한 작용을 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에 의한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분화를 심화시키고 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는것과 함께 독점자본가들로 하여금 독점적고물리운의 일부를 계급적모순을 무마시키는데 리용할 가능성도 증대시킨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들은 독점적고물리운의 일부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 노동귀족을 길러내어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압박이 존재하는 한 근로대중은 자본가계급을 증오하게 되며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계속되게 된다.

고용로동을 착취하여 더 많은 리운을 짜내려는것은 자본의 본성이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용로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더 교활하고 은폐된 형태로 강화되고있다. 독점자본가계급은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지능로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고물리운을 짜내고 있다.

정보산업이 발전되여도 자본의 착취적, 약탈적본성이 변할수 없으며 빈부의 차이와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해결될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실업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분화현상은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근로대중의 반감과 증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이것은 오늘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증산계급론자들의 주장도 현실을 외곡하고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가리워보려는 꾀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증오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을 낳고있다.

자본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생활수준에만 관계된다고 보는것은 사람의 활동과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일면적인 견해이다.

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유산자인가 무산자인가 하는데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아와 빈궁에 못이겨서만 혁명에 나선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적인간의 근본요구, 자주적요구에 있다.

착취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바로 반동적인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데 있다. 착취와 억압은 착취제도의 산물이며 착취계급의 생존방식이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나서는데 있다.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되여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될수 없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의연히 계속될것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지난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자

---

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을 받고있는것만큼 자본주의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는것은 곧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지난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하여 계급적모순과 계급투쟁이

없어진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중산계급론자들이 자본주의사회의 심각한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무마하기 위하여 궤변을 늘어놓고있지만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탈이 강화되고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은 해소될수 없으며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다.